# ‘새 강진 만들기’ 민선 8기 로드맵 확정

## 일자리·인구 늘리기에 역점
## 관광객 500만·농특산물 특구
## 주민소통 강화 등 55대 사업 추진

강진군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을 향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강진군은 민선 8기 로드맵 최종안으로 5대 분야 55대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신(新)강진 만들기에 나섰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인구증가로 강진 희망 만들기 ▲관광객 500만 유치로 관광 강진 만들기 ▲건강하고 행복한 강진 만들기 ▲융복합산업으로 고소득 강진 만들기 등 기존 4대 분야에 ‘투자유치로 남해안 거점 도시 만들기’를 추가한 5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군은 중단기 발전과 함께 도시 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을 추가해 신강진 건설 전략에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건이 늘어난 분야별 사업은 ‘교육을 통한 휴먼 강화’, ‘깨끗한 공중화장실 등 기반 시설 조성’, ‘전남 중남부권 철도 건설’ 등 3건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2건은 기존 사업을 분리해 힘을 싣기로 했다.

‘쌀귀리 및 옴천 토하 특구 조성’이 ‘쌀귀리 특구 조성’과 ‘옴천 토하 특구 조성’으로, ‘민원소통위원회 운영 및 SNS를 통한 소통강화’ 역시 ‘민원소통위원회 운영’과 ‘SNS 소통강화’로 독립시켜 특산물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에 힘을 싣고, 군민들과의 소통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차별화 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5대 분야 55대 사업은 강진원 강진군수가 취임과 함께 제시한 5·5·5·5 전략(▲연간 관광객 500만명 유입 ▲신규 일자리 5000개 창출 ▲1인당 연 소득 5000만원 실현 ▲강진 인구 5만명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이다. 군은 부서별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매주 주간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분명한 목표와 섬세한 전략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곳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운동화 끈을 묶고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을 위해 쉬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며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은빛 억새 출렁이는 천관산의 가을** 장흥군 천관산 정상을 수놓은 은빛 억새가 가을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을 반기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피기 시작한 억새는 10월 중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암괴석과 다도해를 배경으로 펼쳐진 천관산 억새는 가을철 최고의 절경으로 손꼽힌다. 〈장흥군 제공〉

# 나주 대표축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3년만에 열린다

## 10월 8~9일 국립나주박물관
## 댄싱 온 마한 등 공연·체험 다채

나주시 대표문화축제인 ‘마한문화제’가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3년 만에 개최된다.

나주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2022년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축제는 ‘나주잔치, Play마한!’이라는 부제로 마한 ‘명품’(名品), ‘기품’(氣品), ‘진품’(眞品), ‘정품’(精品), ‘별품’(別品) 등 5개 부문 총 30종의 문화·체험·판매·연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표 행사로는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마한개막제’와 ‘댄싱 온(Dancing On) 마한’이 있다.

축제 서막을 알리는 개막제는 축제 첫날 오전 11시부터 박물관 앞 특설무대 일원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은 축제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콘셉트로 풍악놀이와 마한 소도연, 복 나눔(나주 쌀 뻥튀기)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진다.

또 행사에는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음식 장인 천수봉 명인이 만든 나주 한상 시식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개막 축하공연에는 미스터 트롯 정동원이, 익일 폐막공연에는 퍼포먼스 그룹 비스타, 초대가수 백혜신, 조명섭 등이 무대를 장식한다.

축제에는 동신대학교 주관으로 K-POP, 왁킹, 셔플, 무용 등 다양한 장르 팀이 출전하며 스트릿 우먼파이터 출신 댄서 효진초이, 러브란 등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축제를 찾는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체험(마한진품), 먹거리(마한정품)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축제 기간 활쏘기, 금동문양 팔찌·금동관 만들기 체험과 대형 화덕 바비큐, 향토식당, 청년 푸드코트, 특산품 판매관 등을 운영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나주시는 미국 LA에서 열린 한국농수산물 엑스포전에서 현지 업체와 1000만 달러 규모 나주 농특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 나주시 1000만달러 규모 농특산물 미국 수출

## LA엑스포서 유통업체와 협약

나주시가 미국 현지 유통업체와 손잡고 1000만 달러 규모의 지역 농특산품 수출에 나섰다.

나주시 강영구 부시장을 비롯한 미국 방문단 일행이 지난 21일 미국 LA한인타운에서 열리는 제16회 한국농수산물 엑스포전(이하 LA농수산엑스포)을 방문했다.

LA농수산엑스포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LA 서울국제공원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120만 한인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나주시 방문단 일행은 강영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이재남 시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이동희 나주배원협조합장과 관내 업체인 (주)골든힐, 레인보우팜 대표 등으로 꾸려졌다.

방문단은 첫 일정으로 LA농수산엑스포에 참가한 지역 업체(부스)를 찾아 격려하고 나주쌀, 나주배 등 우수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판촉·홍보했다.

특히 이곳에서 한국식품을 전문으로 수입·판매하는 미국 최대 한인 유통업체인 한남체인(회장 하기환) 플러튼점과 1000만 달러 규모 나주 농특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강영구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교두보 삼아 나주배, 나주쌀 등 우수한 나주 농산물이 미국 한인들에게 사랑받는 식품이 될 수 있도록 한남체인과의 협력,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방문단은 하기환 한남체인 회장이 주최하는 초청회 자리에서 한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나주산 농산물 수출 판로를 모색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성군,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지원금 지급

## 30일까지…업체당 20만원씩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접수 서두르세요.”

장성군이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지급 사업 신청서 접수를 오는 30일 종료한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김한종 장성군수의 공약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업체당 20만원을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일 0시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단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매출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현재 지급률은 70%로 아직 800여명의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이 이달 30일 마무리된다”며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접수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함평군 보훈수당 7만원→10만원 증액 지급

함평군이 국가유공자의 복지와 예우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보훈수당을 늘려 지급한다.

함평군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과 한국전쟁·월남전쟁 등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한다. 이에 앞서 함평군은 지난 7월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보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중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